

해병대 전통정신계승 방안에 관한 연구

- 인천상륙작전 중심으로 -

김호춘 *

요 약

인천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5일에 연합군과 한국 해병대가 실시한 한반도 최초의 연합상륙작전이었다.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의는 낙동강방어전선에서 반격을 위한 공세이전으로 전환시켜 수도 서울 탈환이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있다.

인천상륙작전간 한국해병대는 미군들의 주요지휘관들로부터 “한국 해병대의 철저한 전투수행에는 어떠한 결함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격찬을 받으면서 위국헌신의 희생정신으로 한국해병대의 위용을 전 세계에 과시하였다.

오늘날 우리 해병대가 국민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으면서 국민의 군대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강한 훈련을 통하여 유사시를 대비했기 때문이었다.

앞으로도 장병들의 주적개념과 국가관을 확립토록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또한 강한 훈련을 통하여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자신감을 배양토록 힘써야 할 것이다. 특히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의 잘못된 전통을 척결하여야 할 것이다. 선배해병들의 피와 땀과 눈물어린 전통을 보다 계승 발전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병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The reserch of method of succession on ROK marine's spirit and tradition. - Based on 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Ho Chun Kim *

ABSTRACT

Operation Chromite was the first combined landing operation executed by ROK marine corp's and allied forces on Sept 15, 1950.

Its historical significance is that it provided Korea with an opportunity to retake capital city Seoul because it helped to fight back from Nakdong river defense Front.

During the landing, ROK marine corp's was highly praised from US commanders that "No any defect was found from ROK marine corp's perfect battle performance." and ROK marine corp's spirit of sacrifice with serving our country presented a grant spectacle to all over the world.

In these days, the reason why ROK marine corp's gains trust and has grow successfully as national army force is that it prepares national emergency though strong training during peacetime.

However, bad tradition like beating and harsh treatment must be fixed.

ROK marine corp's should improve and take over the hard earned tradition from former marines and do our best to be trusted from people.

Keywords: ROK marine corp's, landing operation, tradition, training.

1. 서론

3면이 바다라는 한반도의 지형적 여건과 여수 · 순천 반란 사건을 통해 상륙작전부대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됨에 따라 1949년 4월 15일 국가보위의 최선봉이 될 해병대가 창설되었다. 이와 같이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 임무를 전담하기 위해 태동되었으며 그 법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해병대 임무에 관한 제도적 및 법적 장치는 대한민국 국군조직법(법률 제 4,249호, 1990, 8.31) 제3조 ②항에 의하여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법적장치를 기초로 한국 전쟁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로 상륙작전이 실시되어 적을 격퇴 및 격멸함으로써 해병대 존재가치와 상륙작전의 중요성을 증명하였다.

특히 인천상륙작전은 5,000대 1의 성공률을 가진 도박^[1]으로서 연합군과 한국해병대가 실시한 한반도 최초의 연합 상륙작전이었다. 미국의 전쟁수뇌부들도 인천의 경우 상륙장소 선정의 구비요건 중 어느 한 가지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 계획을 극구 반대하였다.

그러나 맥아더 장군은 6월 29일 한국전선을 시찰한 후 한국전쟁의 성패는 상륙작전에 달려있다고 판단하고 상륙작전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맥아더 장군은 서울에서 불과 32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인천은 정치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맥아더 장군은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면서 전쟁수뇌부들을 설득한 결과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였다.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큰 의의는 낙동강방어전선에서 반격을 위한 공세이전으로 전환시켜 수도 서울 탈환이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있다. 한국해병대는 미 제5연대에 배속되어 적색해안으로 상륙하여 인천을 방어하는 북한군 인천경비여단과 제18사단 및 제31사단을 격멸하고 인천시가지의 잔적들을 소탕하면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해병대 투혼을 발휘하였다.

이에 한국해병대는 미군들의 주요지휘관들로부터 “한국 해병대의 철저한 전투수행에는 어떠한 결함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격찬을 받으면서 위국헌신의 희

생정신으로 한국해병대의 위용을 전세계에 과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해병대는 한국전쟁시 대소전투를 통하여 공격하여 탈취하지 못한 고지가 없었고 방어하여 빼앗겨 본 고지가 단 한번도 없었다. “과정이 좋아야만 결과가 훌륭하다”라는 말과 같이 이는 항시 유사시를 대비한 지휘관들의 선견지명과 최강이 되고자 하는 해병대 특유의 기질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상륙작전을 중심의 연구를 통하여 선배해병들의 피와 땀과 눈물어린 찬란한 해병대 전통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해병대 전통방안 계승에 그 의의를 두었다.

2. 인천상륙작전과 해병대 정신

2.1. 인천상륙작전의 개관

당시 미국 언론부터 세기의 도박이라는 폄하(貶下)를 받았다가 세기의 성공적 파노라마라는 칭찬을 받았던 인천상륙작전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1950년 9월 15일 감행되었다.

한국해병대의 임무는 미제5연대에 배속되어 1950년 9월 15일 18:00시에 적색해안(Red Beach)에 상륙하여 인천일대의 적 격멸과 해안두보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적색해안에 상륙한 한국해병대는 9월 16일 새벽 01시 30분까지 해안두보^[2]를 확보함으로써 수도 서울을 조기 탈환에 기여하였다.

인천상륙작전은 전쟁사에서 전통적인 승리의 비법이 되어온 망치(Hammer)와 모루(Anvil)의 원리를 적용해 이루어 낸 것이었다. 즉 낙동강에서 정면공격에 의한 반격은 엄청난 손실이 따르므로 인천에 상륙하여 병참선 및 퇴로를 차단하여 모루를 만들고 낙동강 전선에서는 반격작전으로 망치를 휘둘러 그 안에 있는 적을 섬멸하는 개념의 작전을 구사한 것이었다.^[3]

인천상륙작전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는 낙동강 전선의 적을 급속히 와해시키고 적의 병참선을 차단, 적에게 물리적 및 심리적 교란효과를 달성하여 적의 전투의지를 꺾어냄으로써 공세이전의 계기를 마련하였

다는 점이다. 특히 지상 반격작전시 예상되는 유엔군의 인적 및 물적·시간적 대량손실을 최소화하고 인천 항만시설과 서울에 이르는 제반 병참시설이 복진을 위해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3]

2.2.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 구상

8월에 들어서자 국군과 유엔군은 왜관 - 포항 - 마산을 연하는 소위 Walker Line이라는 낙동강 방어 전선을 타개하고 반격작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 왜냐하면 북한군의 대규모 병력들이 낙동강 방어전선으로 깊숙이 투입되어 전후방간의 중심이 과도하게 신장되어 있었으며 특히 제해권과 제공권을 아군이 장악함으로써 적 후방으로 상륙작전을 위한 여건이 성숙되어 새로운 작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맥아더 장군은 전쟁발발 4일 후인 6월 29일 전선을 시찰한 후 서울을 연하는 일대에서 적의 중요한 병참선을 타격하기 위해 인천상륙작전 계획을 구상하였다.

그것은 곧 당시의 미국의 정치적 목적과 동원가능한 군사력의 부족차원에서 볼 때 신속한 승리가 요청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소규모의 기동부대를 적 후방 지역으로 상륙시키는 방법 이외에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4]

맥아더 장군이 한국전선의 시찰을 통하여 얻은 확고한 지휘결심 사항은 첫째, 적이 계속 남하하면 이를 지연시킬 시간획득, 둘째, 일본의 무장을 강화하고 재일 미군을 계속 참전시켜 교두보를 유지하고, 셋째, 적의 보급선이 멀어지면 이를 파괴하며, 넷째, 적 후방에 상륙작전을 실시한다는 것이었다.[5]

따라서 도쿄로 돌아온 맥아더 장군은 즉시 참모들에게 합동전략기획작전단[6]을 구성하여 상륙작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후 7월 10일 합동전략기획작전단에서는 블루하트(Blue Heart)작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미 24사단을 투입하여 남하중인 북한군을 수원일대에서 진출을 저지하고 미 제1기병사단은 7월 22일에 인천지역에 상륙시켜 북한군을 남과 북에서 협공하는 계획이었다.[6] 그러나 이 계획은 무산되었다.

왜냐하면 적의 진출속도가 너무 빨라 미 24사단이

북한군 저지에 실패하자[6] 인천상륙지역으로 투입계획이었던 상륙부대인 미 제1기병사단을 즉시 포항지역으로 전환시킨 후 영동으로 진출시켜 적을 우선 저지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상륙작전 계획이 맥아더 장군의 지시에 의해 합동전략기획작전단에서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즉 크로마이트(Chromite)작전 계획이었는데 미 해병대 제 1여단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제2사단을 9월 중순경에 상륙케 한다는 계획안이었다. 이 계획은 상륙지역을 3가지로 선정하였는데 100-B계획은 인천을 100-C계획은 군산을, 100-D계획은 주문진을 상륙지역으로 가상하고 있었다. 이 세 가지 대안 가운데 100-B가 채택되어 인천상륙작전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맥아더 장군이 인천을 상륙장소로 선택한 결정적 이유는 인천은 해양에서 서울로 접근할 수 있는 최단거리 항구이며 또한 수도 서울을 점령한다면 서울 이남으로 연결된 적의 전략적 보급선을 차단하기가 용이하고 적에게 심리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7]

2.3. 한국해병대의 투혼: 해병대 정신 실천

2.3.1 개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필수적 요소인 군인정신은 한마디로 군인이 갖추어야 할 이상적 정신자세로 해병대 정신 역시 해병대에 몸담고 있는 모든 해병들이 갖추어야 할 이상적 정신자세라 하겠다.

해병대 정신은 1953년 3월 해병대 사령부에서 발간한 ‘해병대 전투사’에서 해병대 정신(원명칭: 해병대의 전설)을 가족적 단결정신, 애민정신, 인내의 정신, 임전무퇴의 정신 등 네 가지로 정하여 처음으로 정립하게 되었다. 이를 근간으로 1987년 5월에 해병대 정신의 표어를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으로 정하고 그 실천정신을 단결정신, 애민정신, 인내정신, 임전무퇴정신으로 하여 부분적인 수정보완을 하였다. 그 후 해병대 역사와 전통의 재조명을 통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정신, 무적해병의 상승불패 정신, 정의와 자유를 수호하는 정신으로 현재의 해병대 정신으로 1997년 5월에 재정립하게 되었다.[3]

2.3.2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정신

상륙작전이란 활의 시위에서 떠나 과녁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한번 활의 시위에서 떠난 화살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과 같이 부여된 목표는 반드시 탈취 및 확보해야하기에 무에서 유를 창조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바다라는 무(無)에서 상륙을 개시하여 유(有)라는 적 지형을 탈취 및 확보하여 아군의 병력, 장비 등의 전투력을 축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륙작전은 계획된 철수를 제외하고는 후퇴는 곧 죽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하부대간의 세부적, 동시적, 병행적 치밀한 계획뿐만 아니라 상륙작전의 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적 장애물 극복과 해군, 공군, 상륙군 및 공군세력 등과의 긴밀한 협동과 세부적 협조체제(圖)를 극복 할 때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적의 중심 및 취약점 파악, 적의 구성 및 배치, 적의 주요화기 위치, 적 지형 특성 등의 적에 관한 정확한 정보부재로 다양한 우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륙작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당시 미국언론으로부터 세기의 성공적 파노라마라는 칭찬을 받았던 인천 상륙작전이 그 예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인천은 상륙장소로써 자연적 및 기술적 조건 측면에서 어느 한 가지도 타당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 계획에 관해 미 합참의장 브래들리 장군의 경우 상륙작전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 앞으로 대규모 상륙작전은 다시는 결코 수행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공헌한 바 있었다. 또한 미육군 참모총장 콜린스 장군은 낙동강 방어전선에 투입된 병력을 상륙군으로 전용하는 것은 낙동강 방어선 유지 자체가 곤란하다는 이유 때문에 반대하였으며 해군참모총장 서먼제독의 경우에는 인천의 수로 조건⁵⁾으로 인하여 극구 반대하였다.

미국의 전쟁수뇌부들에 의해 인천을 상륙장소로 반대한 결정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천항의 극심한 간만의 차이였다. 인천의 간만의 차이는 최고 33피트로서 세계 제2위의 큰 차이

를 가지고 있었다. 해안의 경사도를 고려할 때 LST가 상륙해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29피드의 조고가 필요했는데 인천에서 이러한 조고는 한달에 3~4일 동안만 나타날 뿐이었다. 만약 9월15일의 만조시간을 놓치면 다음 10월 13일 만조시간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이었다.

둘째, 인천 접근수로는 좁고 굴곡이 심하며 3~5노트의 강한 조류가 흐르고 있어 주간에도 항해하기 어려운 곳이다. 더욱이 적의 포격과 기뢰의 존재가 예상되는 이 수로를 통하여 공격부대를 이동시킨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다. 이 수로에서 함정이 1척이라도 침몰하게 되면 앞뒤에 있던 다른 함정들은 기동 에 많은 제한을 받을 수 있었다.

셋째, 조석의 영향은 상륙일자와 시간을 제한하였다. 인천에서의 대규모 상륙작전은 만조시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조석은 상륙일자뿐만 아니라 상륙시간까지 결정하는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는 적도 예상할 수 있어 기습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상륙일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공격부대의 융통성을 제한하였다.

넷째, 상륙돌격에 적합한 상륙해안이 부족하였다. 인천의 해안은 대부분 높은 암벽으로 되어 있었고 장소도 협소하여 상륙작전에 극히 불리하였다. 암벽해안에 상륙하려면 사다리과 같은 도구가 필요하였다.⁶⁾

이와 같이 인천상륙작전은 전사(戰史)의 유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상, 바다, 파도, 수로조건 등의 자연 장애물이라는 무(無)의 상태에서 적을 격퇴 및 격멸함으로써 수도서울 조기 탈환의 발판을 구축 및 지연작전을 반격작전으로 공세이전(攻勢移轉)시켜 유(有)의 상태를 창조하는 해병대 정신을 실천하였다.

2.3.3 무적해병의 상승불패정신

해병대는 3면이 바다라는 한반도의 입지조건과 1948년 10월 19일 여순반란사건의 계기로 상륙작전의 부대가 절실히 필요에 의해 1949년 4월 15일 창설되었다.

해병대 창설 당시의 시대상황은 좌익과 우익세력으로 분열되어 약탈, 살인, 방화 등등의 사회질서가 혼란하여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풍전등화의 위기국면을 접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신현준 초대 해병

대 사령관은 교육훈련 이념을 통하여 “해병대는 일치 단결하여 온갖 고난을 이겨냄으로써 유사시에 대비한 최강부대가 되도록 교육훈련에 정진하자”라고 하면서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당시의 훈련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강인한 훈련의 연속이었다. 훈련 중 실탄을 한발이라도 분실하면 2개 중대가 12시간 동안 포복자세로 찾아야 했고 산악과 험로 행군에서 4시간 만에 32km를 주파하고 포복으로 1km 이상을 전진^[3]하는 강한 훈련을 계속하였다.

한편 진주 및 제주도 주둔시절에는 지리산 · 제주도 공비토벌과 함께 정심무장 강화, 민심수습 및 전투력 향상을 위해 전기전술 연마를 강화함으로써 유사시를 대비하였다.

따라서 제주도 주둔시에 북한군의 불법남침으로 한국전쟁을 맞이하여 통영지구 전투에서 한국군 단독 상륙으로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칭호를 얻었다. 또한 인천상륙작전을 통하여 방어 작전에서 공격을 위한 공세이전으로 전환시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해병대의 상승불패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적과 싸우면 항상 이기는 상승불패정신은 화랑도의 임진무퇴 기상을 바탕으로 하는 불패정신과 임진왜란 당시 불과 12척의 전선으로 130여 척의 왜군 전선(戰船)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의 필생즉사, 필사즉생(必生卽死, 必死卽生)정신을 기저(基底)로 하여 반세기 속에 형성된 우리의 전통정신이다.^[3]

초창기 열악한 병력과 장비로 창설된 이래 한국전쟁과 월남전에서 험난한 전투를 수행하면서 특유의 인내와 끈기, 강한투지력으로 공격하여 빼앗지 못한 고지가 없었고 방어하여 사수하지 못한 진지가 없었던 상승불패의 전통을 수립하였다.

2.3.4 정의와 자유를 수호하는 정신

북한은 소련의 지원하에 남한의 공산화 목표를 두고 남침준비를 위하여 군사력을 증강하였다. 북한의 남침계획은 8월 15일까지는 부산을 점령하여 남한 전 지역을 공산화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소련은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의 적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군사적 원조를 아끼지 않고 있었는데 당시의 남북한의 병력은 1 : 2, 전투력은 1 : 2.6의 비율로 남한이 열세^[2]에

있었다. 이러한 남북한간의 현저한 군사력의 격차는 북한이 남침을 자신 있게 주도할 수 있는 직접적인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이외에도 전투력의 지속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군수물자를 비축하고 일부 보급품들은 계속 북한 내에서 생산 및 공급한다는 생산단계 계획을 갖고 있었다.

특히 38도선 상에서 대치하고 있던 북한군은 전면 남침을 앞두고 국군의 전투력과 대응 및 경비 상태를 탐색하기 위해 전쟁 직전까지 웅진, 개성 및 춘천지역에서 제한된 무력도발을 일삼았다.^[10]

그러나 우리는 북한군의 도발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국방대비책 강구에 소홀하였다.

즉 1950년 4월 육군본부는 북한군의 심상찮은 동태로 보아 5~6월이 남침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국회에 전력증강을 위한 긴급건의서를 제출하였지만 이때 국회는 5월 30일 선거준비 휴회로 인한 미상정하였다. 또한 미국동사령부에서는 중공군의 일부가 북한군에 편입된 사실을 위시하여 그들의 장비로서 122밀리 곡사포, T-34전차 및 전투기가 대폭 증가된 것 등을 참작하여 남침을 판단하였지만 미국당국은 목살하였으며 6월 24일 토요일에는 장병들에게 외출, 외박이 허가되고 경계태세 발령이후 보류되었던 휴가를 실시하였다. 특히 육군본부에서 재경 국군수뇌와 가까운 전후방부대 지휘관 및 미교문관이 장교구락부 개설 축하연에 참가 및 향락^[2]등으로 무사 안일한 국방경비태세 소홀로 인하여 한민족의 동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사전 만반의 남침준비 계획에 의거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불법적인 기습남침을 개시하였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을 응징하기 위해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긴급 요청하였다.

왜냐하면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1차적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미국의 요청에 의거 안전보장이사회는 6월 25일 14시에(한국시간 26일 04시)소집되어 북한군의 불법적인 침략을 규정하고 남한에서 즉시 철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자 6월 27일 14시에(한국시간 28일 04시)제2차 안전보장이사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 결의안을 채택하여 16개국의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었다.

한국해병대는 미제5해병연대에 배속되어 인천상륙작전을 통하여 국제평화를 파괴한 침략군들을 격멸하고 서울탈환의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정의와 자유를 수호하는 정신을 실천하였다. 이 정신은 초대 해병대 신현준 사령관의 교육훈련 이념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자유를 수호하는 역사를 창조하자”고 다짐함으로써 해병대 창설초기부터 뿌리내려온 해병대 전통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이 정신은 해병대의 존재목적과 사명을 제시하는 정신으로 자람 매김하였다. 즉 정의와 자유를 수호하는 정신을 전통정신의 한 지류로 삼고 있는 해병대는 1967년 3월 21일에 제정된 해병대 내규상의 ‘부대기 운영규정’편에 해병대 존재목적은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라고 공식적으로 명시하였다.^[3]

2.4. 전투의 승패는 지휘관 책임: 지휘관의 탁월한 용병술

맥아더 장군이 인천을 상륙장소로 선택한 가장 주된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 중 태평양 전쟁에서 그가 11회 이상 실시한 상륙작전에서 보인 특장대로 간접접근 전략에 의해서였다. 즉 적이 가장 원하지 않는 곳을 공격하여 보급선을 차단하고 완전 포위하여 적군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간접접근 전략은 물리적 효과측면에서 적의 대응 준비가 가장 적은 곳(攻其無備)이라는 최소저항선과 심리적 효과측면에서 적이 예상하지 않은 장소, 방책 등을 선택하여(出其不意) 전략적 행동을 달성한다. 특히 병참선 차단은 간접접근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서 물리적 및 정신적 조직을 마비시키는데 있다. 나폴레옹도 “전쟁술의 모든 비결은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병참선에 대해 흰끼 꿰뚫어 보는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맥아더 장군은 적의 약점을 병참선에 두고 인천에 상륙하여 서울을 탈환한다면 적의 병참선[5]을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위대한 장군들의 승리이면에는 지휘관의 냉철한 판단력과 자신의 신념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숨쉬고 있다. 미국의 전쟁수뇌들은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 계획을 공상적인 계획이라 반대하였지만 맥아더 장군

의 끈질긴 설득력으로 한국을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구한 세기의 역사적 파노라마를 창출하였다. 통영지구 전투도 김성은 부대장의 급힐 줄 모르는 확고한 신념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해군본부에서는 김성은 부대장에게 거제도도 상륙하여 적의 거제도 상륙에 대비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김성은 부대장은 거제도의 긴 해안선을 방어하기보다는 차라리 통영으로 상륙하여 원문고개만 차단하여 시가지 전투를 수행한다면 적은 독 안에 든 쥐라고 생각하였다. 김성은 부대장은 해군본부에 3차례에 걸쳐 작전지역 변경요청 건의 보고에 따라 통영으로 상륙작전을 감행함으로써 한국군 최초 단독상륙작전 및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역사적인 칭호를 수립하였다.

이외에도 도솔산 지구전투에서도 개미 한 마리도 지나갈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지뢰와 장애물, 또한 저지에서 고지로 공격하는 지형적 어려움 때문에 도솔산 고지를 탈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였다. 하지만 김대식 연대장은 주간 전투에서 야간공격으로 전환하여 미 제5해병연대에서도 탈취하지 못한 도솔산 고지를 한국해병대는 17일 만에 난공불락이라는 고지를 탈취 및 확보하여 무적해병대의 칭호를 수립하였다.

3. 해병대 전통 계승 강화 방안

3.1.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으로 정신무장 강화

그동안 남북간에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화해 및 협력 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다방면에서 많은 교류를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후 우리 국민들은 내일 당장 통일이 되는 것처럼 기뻐하면서 북한을 우리의 심장부를 겨냥하고 있는 적보다는 우리의 동족이라는 감성에 사로잡혀 안보불감증에 빠져있다.

동국대 강정구교수의 예만 보더라도 “6.25는 통일을 위한 내전” “미군정 때 77%가 공산 및 사회주의를 지지”란 주장^[11]들을 하면서 우리의 확고한 안보의식을 혼란시키고 있다. 북한의 야만성과 잔인성은 여수

· 순천반란 및 제주도 4.3폭동 시에 극명하게 드러났다. 즉 순천을 점령한 공산주의 세력들은 순천경찰서장 (총경 양발원)을 체포한 후 휘발유를 뿌려 불태우는 만행을 자행하였다. 제주도 4.3폭동 시에도 공산주의자들은 군·경·공무원과 우익인사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하여 제주도를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만든 공산주의자들의 포악성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들은 언제든지 우리의 심장부를 찌를 수 있는 날카로운 비수를 지니고 있음을 상기하고 항시 북한외의 화전양면전술을 새삼 경계해야 한다.

비록 북한은 우리와 같은 동족이지만 그들이 지향하는 이념과 체제가 우리와 현저히 다르며 6.25전쟁 및 2002년 월드컵 마지막 날 자행한 서해교전, 2003년 10월 17일 우라늄 농축 및 핵개발 가능성 시인, 그리고 NPT탈퇴를 선언함으로써 핵 동결을 약속한 제네바 핵 합의(94. 12. 24) 파기 등 수많은 대남도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공산화하려는 의도와 능력을 버리지 않고 있다.

“평화시기에는 전쟁에 대비하라”는 옛 성현의 말씀과 같이 이러한 때에 우리들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최일선에 서있을 뿐 아니라 유사시 국가보위의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우리들은 북한의 화전양면전술에 현혹되지 말고 냉철한 안보관과 뜨거운 애국의 가슴으로 맑은 바 임무완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시 한번 “우리들은 백년동안 군사력을 쓸 일이 생기지 않더라도 단 하루라도 국방의 대비태세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라는 옛 성현을 말씀들 가슴 깊이 되새겨야 한다.

3.2. 간부들의 솔선수범 및 희생정신 배양

해병대 7대전투사의 금자탑을 분석하면 여러 승리요인 중 간부들의 솔선수범과 희생정신이 승리의 원동력임을 발견 할 수 있다. 선배간부들은 부여된 임무는 반드시 죽음을 무릅쓰고 완수하겠다는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생명을 보장 받을 수 없는 위태로운 순간에도 부하들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앞장서서 적을 향해 돌진하였다. 자신의 목숨보다 부하들의 목숨을 귀중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부하를 위해 죽는 것은 보다 값지고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생각

하면서 스스로 자부심을 키워왔다. 도솔산 지구전투에서 이근식 소대장은 수차례에 걸쳐 적진지를 향해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번번히 실패하였다.

부하들을 독려하였으나 부하들은 뻔한 죽음 앞에 쉽게 진진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근식 소대장은 중대장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목표를 탈취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안전핀을 뽑은 수류탄 2발을 양손에 쥐고 나머지 수류탄 2발^[12]은 탄피에 걸고서 적진을 향해 돌진하였다.

고개만 들면 소낙비 뿌리듯 보이는 적의 총탄에 고귀한 생명은 보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소대원들이 고지아래에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적진지를 향해 다가가서 과감하게 수류탄을 투척하자 이를 지켜 본 소대원들은 사기충천하여 즉시 공격을 개시, 도솔산 고지를 탈취하였다. 뿐만 아니라 장단지구(사천강)전투에서도 김용호 소위는 증강된 1개 소대 약 75명의 병력으로 야음을 틈타 소대 진지로 침입한 대대규모의 증공군을 백병전까지 감행하면서 적 115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증공군을 격퇴한 김용호 소위는 소대원 75명 중 70명이 전사한 것을 확인하고 “부하를 많이 희생해 중대장을 빌 면목이 없어 대원들이 잠든 이고지 위에서 죽음을 택한다”라는 짙막한 유서^[12]를 남기고 자결하였다. 이와 같이 간부들의 솔선수범과 부하를 위한 희생정신은 타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해병대 특유의 찬란한 전통을 수립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오늘날 신세대 장병의 특성과 관련 간부들의 솔선수범 정신이 보다 요구되고 있다. 신세대 장병의 경우 행동이 예측불가능하다고 하여 자유분방한 럭비볼 세대라고도 말한다. 이들의 의식성향은 자기중심적 및 자기편의 주의로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정에 따른 인간관계보다는 원인과 이유를 따지기를 좋아한다. 또한 이들은 수직적 인간관계보다는 수평적 인간관계를 중시하며 권위주의를 거부한다.

앞으로 간부들은 계급만 앞세워 부대를 지휘할 수 없다. 특히 이들은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 자들이 계급만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라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간부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술선수범과 부하에 대한 희생정신으로 그들을 감화시켜야만 한다. 이제 간부들은 투명하지 않고서는 부하들 앞에 떳떳이 설 수 없다. 지금 간부들의 행동하나하나를 대원들의 가정에서부터 타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생중계 방송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3.3. 국민의 군대라는 강한 신뢰감 형성

해병대만큼 국민의 군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고 힘쓴 군대는 없다. 국민들의 사랑 없이는 해병대 존재가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신 현준 사령관은 장병 정신교육시마다 “민에게는 양이 되고 적에게는 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대민민폐근절에 정성을 다하였다.

특히 해병대 약 1개 대대규모가 지리산 공비토벌을 위해 경남 진주에 파견되었다. 진주 주둔시 해병대는 “백성 없이는 전투도 없다”라는 표어를 가지고 면소재지를 순회하면서 반공강연과 계몽활동, 추수기 대민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공비토벌과 민심을 수습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서의 태동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해병대는 49년 12월 26일 제주도도로 이동하였다. 제주도 주둔시 해병대 임무는 제주도의 피폐한 민심을 수습하고 한라산의 공비를 토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주도 주민들은 군(軍)에 대한 원한과 공포증을 가지고 있어 민심을 수습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또한 대개 이들은 공비와의 혈연관계 유지로 인하여 공비가 마을에 출몰하여도 신고하지 않아 공비토벌도 쉽지 않았다. 그 당시 제주도도민들은 대개가 공비들과 혈연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군에 대한 공포증과 원한을 품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해병대는 제주도도민들의 민심을 얻지 않고서는 임무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민민폐근절을 위해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봉사활동과 대민진료를 통하여 민·군 유대강화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지극정성을 다한 결과 한라산 공비토벌은 물론 3,000여명의 제주도 청년들^[33]을 해병대에 입대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더 한층 국민의 군대라는 Know-How를 축적하였다. 한편 해병대는 월남전 사

상 유례 없는 건과를 올려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짜반동 기습방어전투의 승리로 신화를 남긴 해병의 명성^[34]을 얻음으로써 무적해병의 신화를 창출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수록 보다 자제하고 전력증가분야에 더 힘을 보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자만심에 도취되어 민심을 이탈하였다. 그 결과 창설 된지 24년 6개월 만에 해병대 사령부 해체(73년 10월 10일)라는 뼈아픈 시련을 경험하였다. 우리들은 해병대가 ‘용(龍)’이라면 국민들은 ‘용(龍)’이 승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깊은 바닷물이라고 생각하여야 한다. 깊은 바닷물이 없으면 용은 승천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의 군대라는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장병들의 출타군기를 확립하여 대민 민폐근절하고 전역장병들에 대해서는 모군 사랑 풍토를 조성케 하여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둘째, 해병대 전 간부는 해병대 정신 및 전투사 교관능력을 구비케 하여 오도된 해병대 전통 척결하고 셋째, 해병대 사적지 견학과 미담사례 발굴·홍보활동 활성화하고 넷째, 예비역 전우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사회봉사활동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3.4. 불가능을 모르는 전천후 해병전사 배양

군 교육의 목적에 관하여 현 국방교육훈련체계에서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외부의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보위와 평화통일을 뒷받침하고 지역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국방목표 아래 적과 싸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정예장병 및 부대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병대 교육훈련의 목표는 어떠한가? 해병대 교육훈련 규정에 의하면 “해병대에게 부여되는 다양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강인한 해병대식 교육훈련^[14]을 실시하여, 어떠한 전투에서도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최강 해병대원 및 부대를 육성한다.”^[14]라고 정의되고 있다.

또한 교육훈련 중점^[14]도 “현재 및 미래 전장을 지배할 수 있고 해병대 고유임무인 상륙작전을 완수할 수 있는 군사 전문요원을 육성하는 것이며 연합 및 합동 공·지·해 작전수행 능력을 포함하여 적보다 절대 우위의 전쟁수행능력을 갖춘 강 해병대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해병대 교육훈련 중점에 부합도록 상륙작전 전문지식을 구비 했을까?

상륙작전과 연계되는 많은 용어 사용과 부대별 계획에 의거 BLT 및 RLT훈련을 하고 있으면서도 상륙전에 관해 진정한 전문가라고 평가받고 있는지 또한 상륙작전에 관한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계획수립을 할 수 있는지 등등의 질문에 관해 의구심을 가져본다. 왜냐하면 전장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즉, 과학기술의 영향으로 무기체계가 첨단화되고 정밀화되고 있으며 기동수단은 더욱 고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륙작전의 경우 종전에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던 바다의 개념이 기동의 개념으로 전환된 이후 많은 발전이 있었다. 함안이동 장비가 고속화되고 장거리 해양능력을 갖추으로써 적의 탐지거리 밖에서 발전하는 원거리 발전개념으로 발전되었고 최근에는 바다로부터의 작전적 기동과 함정에서 목표로의 기동(STOM)이라는 최신 상륙작전개념까지도 개발되어 있는 실정이다.^[9]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과학기술 변화에 따른 상륙작전 교리연구에 관해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해병대 간부들은 상륙작전 분야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토록 완벽한 전술지식을 겸비해야만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해병대 고유의 임무 망각이라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해병대 생존권에 관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털미를 타군들에게 제공하느라 애를 쓴다.

이와 더불어 평상시 강한 훈련을 통하여 임전태세를 완비해야만 한다. “평시 땀 한 방울이 전시 피 한 방울과 같다(多流汗, 少流血)”라는 말과 같이 훈련은 실천 같이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싸우는 방법대로 훈련하여야 유사시 훈련한대로 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훈련 과정은 생략할 수 없다. 만약 과정을 생략하고 훌륭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도솔산 지구전투에서 17일 만에, 김일성 및 모택동 고지전투에서는 4일 만에 부여된 목표를 탈취 및 확보하였다. 이들 고지군들은 대체로 평균 1000미터 이상 고지였다. 유사시 우리가 싸울 전장지역은 북쪽이다. 가파르고 험한 능선, 울창한 산림으로 앞뒤를 분간하기 어려운 높은 고지군들 뿐이다. ‘해병중의 해

병’이라고 칭송을 받아 온 고(故)진두대 중위는 자신이 북한군에게 포로가 되었을 때 제주도 한라산의 매서운 바람과 맞서면서 공비를 토벌했던 기억 등을 상기하면서 북한군들의 살벌한 심문과 회유^[12]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평시 강한 훈련은 이와 같이 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않은 정신력을 강화시켜 준다.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해병대’, ‘최강부대’, ‘귀신 잡는 해병대’, ‘무적해병대’ ‘신화를 남긴 해병대’라는 칭호는 적을 압도할 수 있는 강한 훈련의 산물임을 꼭 기억해야만 한다. 부하를 위한 최선의 복지는 교육훈련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4. 결 론

해병대는 1949년 4월 15일 진해덕산 비행장에서 380명의 인원으로 창설되었다. 해병대 창설의 결정적인 계기는 1948년 10월 여수와 순천반란사건이었다. 즉 반란세력들이 전마선을 타고 바다에서 육지로 도주했기 때문에 해군에서는 육상에서 전투를 할 수 있는 특수부대가 필요했다.^[3]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수행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해병대가 창설할 당시의 국가정세는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도 모르는 풍전등화 같은 위기상황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해병대는 유사시를 대비해 교육훈련에만 정진했다. 그 결과 한국전쟁당시에는 한국군 최초의 단독상륙작전이라는 통영 지구전투에서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칭호를 얻었다. 또 도솔산 지구전투에서도 난공불락이라는 도솔산 1148고지를 17일 만에 탈취 및 확보함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무적해병대라는 휘호를 받았다. 특히 해병대는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하여 한국해병대의 용맹성을 크게 떨쳐 조기 서울수복이라는 발판을 구축하였다. 뿐만 아니라 월남 전쟁 당시 짜빈동 야간 기습방어전투에서 월맹군 1개 여단을 격퇴 및 격멸함으로써 신화를 남긴 해병대라는 명성을 국내외에 과시하기도 하였다.

오늘날 우리 해병대가 국민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으면서 국민의 군대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평시 강한 훈련을 통하여 유사시를 대비했기 때문이었

다. 진주 주둔시에는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을 강화하였고, 제주도 주둔시에는 정신무장을 강화함으로써 임전태세를 완비하였다.

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유사시 대비에 있기에 앞으로 장병들의 주적개념과 국가관을 확립토록 정신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강한 훈련을 통하여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자신감을 배양해야 한다. 선배해병들의 피와 땀과 눈물어린 전통을 보다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해병대 구성원들의 의무임을 각자 명심해야 한다.

특히 우리는 과거 잘못된 악습들을 척결해야 한다. 구타 및 가혹행위는 해병대의 가족적인 단결을 파괴하고 전투력 향상에 전혀 쓸모없는 장애물이기에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군대가 되기 위해 반드시 구타 및 가혹행위는 발본색원 되어야 한다. 우리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1973년 10월 10일 해병대 사령부 해체라는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 없이는 작지만 강한 군대로 성장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야 한다. 선배해병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대가로 얻은 빛나는 전통을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강인한 훈련을 통해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전사를 육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병간부들은 상륙작전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도록 전술전기 연마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만 할 것이다. 아울러 해병대 전통계승 방안에 관하여 연구발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휘관심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5] 해군대학, 「상륙전사」, 해군대학, 2000
 [6] 정토웅, 「20세기 결전 30장면」, 가람기획, 1997
 [7] 육군사관학교, 「한국전쟁사」 (증보판), 일신사, 1987
 [8] 해병대 사령부, 「상륙작전 교리」, 1992
 [9] 해병대 사령부, 「해병대 Vision 2025」, 2000
 [10] 이병태, 「한국사에서 찾는 나라 지키기」, 삼우사, 1998
 [11] 조선일보, 20005년 10월 5일.
 [12] 해병대 사령부, 「한국전쟁과 해병대」 참전수기, 2003
 [13] 정채호, 「해병대의 전통과 비화」, 화정문화사, 2000
 [14] 해병대 부대훈련 규정(2015) 제1조~4조.

— [저 자 소 개] —



김 호 춘 (Ho Chun Kim)

포항대학교 군사과 학과장
(법학박사)

email : mckim@pohang.ac.kr

참고문헌

[1] David, 「Korea: The Limited War」, St. Martin's Pub., 1964.
 [2] 합동참모본부, 「한국전사」, 합동참모본부, 1984
 [3] 해병대 사령부, 「해병대 문화와 가치」, 해병대 사령부, 2000
 [4] 류재갑, “인천상륙작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현대적 재명”, 제4회 해병대 발전심포지엄, 2000. 9.